

한국어 구어·문어 상호능력 신장을 위한 ‘-다’, ‘-ㄴ다/는다’의 교육 연구

: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

박혜숙*

|| 차례 ||

- I. 서론
- II. ‘-다’, ‘-ㄴ다/는다’의 의미와 용법
- III. ‘-다’, ‘-ㄴ다/는다’의 교육 단계 설정
- IV. 한국어 교재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구어·문어 상호능력의 신장을 위해 대표적 문어체 종결어미인 ‘-다’, ‘-ㄴ다/는다’의 교육 단계 설정과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문어적 의미 기능과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모형』의 관련 내용과 현행 한국어 교재 5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문어적 기능과 용법에 관한 적절한 교육 단계와 교육 내용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기능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반말’의 범주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 특성에 따라 주제 또는 기능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과제 구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구어·문어 상호능력, ‘-다’, ‘-ㄴ다/는다’의 문어체 종결 기능과 구어적 특성,
표준모형, 한국어교재 분석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강사

I. 서론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교육은 궁극적으로 한국어 구어 능력과 문어 능력의 조화로운 신장을 통해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 전반에 걸쳐 유창하고 균형 있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 그러나 그동안 한국어교육은 다분히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또, 한국어 문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읽기와 쓰기 기능 영역 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류선숙(2015: 57)에서는 다문화 아동 학습자들이 취학 후 학교 교육과정에서 ‘초기 문어 기술’과 ‘전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은데 비해 문장 또는 담화 단위의 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다문화 아동 학습자의 학습 성취를 위해서는 구어와 문어간의 균형적 언어 접근법에 기반한 직접적인 문어교육이 행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학생 등 다른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실제, 대부분의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는 읽기 및 쓰기 영역에서도 문어체 담화를 거의 배제한 채 구어체 담화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

1) 구어 또는 입말과 문어 또는 글말의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발화체로서 구어 또는 문어와 발화의 양식을 구별해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듯하다(장소원, 1986: 193; 장경현, 2003: 146).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구어와 문어 또는 그 발화양식에 대한 정밀한 개념 정의보다는 언어 수단과 관계없이 한국어 학습자가 문어체 담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담화 맥락에 맞게 표준적인 문어 또는 구어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문법 표현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여기서는 발화 양식에 관해 말할 때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그리고 발화체를 지칭할 때는 문어체 문어만을 문어로 그리고 그 언어 수단이 문자이든 음성이든 구어체로 발화된 것은 모두 구어로 지칭하기로 한다.

분의 학습자들이 초급 교육과정에서 문어체의 형태적, 통사적, 어휘적 특성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중급 단계에 이르러 초반부터 다양한 문어체 읽기 및 쓰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²⁾. 더욱이 3급 이상을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II’의 쓰기 과목에서는 구어적 어휘 및 문법 표현의 사용이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따른 학습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또, 반대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발표문의 문어체 종결형을 담화 맥락에 맞는 구어 발화 형식으로 변환하지 못하고 문어체 종결형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어체 발화의 이해와 올바른 표현을 위한 문법 및 어휘 교육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높임법 체계 안에서 ‘해라’체 평서형 어미로 다루어지는 한편 문어체 문장종결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다’, ‘-ㄴ다/는다’의 교육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어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립국어원(2002)의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에 따르면 ‘-다’, ‘-ㄴ다/는다’는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한국어 어미이다. 또,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유형 중에도 ‘-다’, ‘-ㄴ다/는다’를 기본적인 종결 형태로 하는 설명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교양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쓰기 과제에 나타난 오류 사례를 철자 오류를 포함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례1) “요즘은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팬을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데뷔 때부터 그들의 팬이었다’라고 하는 팬입니다.”(중급, 아랍 학생), 사례2) “나는 사이언스 픽션을 너무 좋아한다. 그 장르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다.”(중급, 러시아 학생), 사례 3)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에는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중급, 중국 학생)

보고되고 있다(양명희, 2009: 46). 따라서 ‘-다’, ‘-ㄴ다/는다’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적인 문법교육 내용 선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다.

문어 또는 문어체의 교육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문어 수용 및 산출 행위가 구어 의사소통 행위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³⁾. 문어체 관련 문법 지식은 문어 능력뿐 아니라 듣기 말하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교육에 있어 ‘-다’, ‘-ㄴ다/는다’의 교육에 관해 살펴보되, 교육 단계와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 및 과제 구성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문어적 의미 기능과 용법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이어,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이하 『표준모형』) 문법 등급 목록의 단계 설정과 문어적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요구되는 기능들의 중점 적용 등급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5종의 현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다’, ‘-ㄴ다/는다’의 교육 단계와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3) 최정순(2010: 17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능력 배양 방안에 관한 논의에서 언어 능력을 구어 기반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어 기반의 문식력으로 나누고, 구어 능력을 다시 구어 산출, 구어 수용, 구어상호행위 능력으로 문어 능력을 문어 수용, 문어 산출, 문어상호행위 능력으로 나누어 위계화하고 있다. 여기서 구어상호행위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한 후 담화 맥락에 알맞게 그에 관해 구어적 대응을 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다. 또, 문어상호행위는 문어 담화를 이해하고 담화 맥락에 맞게 문어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외에도 구어 수용을 기반으로 문어 산출을 하거나 반대로 문어 수용을 기반으로 구어 산출을 해야 하는 구어·문어 상호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한국어 교육 과정 및 현장에서는 대개 언어 기능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듣기, 읽기의 이해 영역과 말하기, 쓰기의 표현 영역이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어 과제를 구성하므로 구어·문어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한다⁴⁾. 이에 덧붙여 『표준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기능의 과제 유형들이 문어 수용 및 산출, 문어·구어 상호작용 중 어떤 유형인지 살펴봄으로써 ‘-다’, ‘-ㄴ다/는다’의 교육 방안을 위한 실마리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

II. ‘-다’, ‘-ㄴ다/는다’의 의미와 용법

1. ‘-다’, ‘-ㄴ다/는다’의 사전적 정의

먼저, ‘-다’, ‘-ㄴ/는다’의 사전적 정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종결어미 ‘-다’, ‘-ㄴ/는다’에 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구어와 문어에서 의미 기능 및 용법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다’의 경우 아래 정리한 용법 외에도 용언의 활용형 중에 기본형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1] 어미 ‘-다’와 ‘-ㄴ다/는다’의 의미와 기능(『표준국어대사전』)

	구어	문어
‘-다’	‘이다’나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이며, 어떤 사건이나 사실, 상태를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간접적으로 청자나 독자를 상정한 상황인 일기문이나 신문 기사의 제목 따위에서 과거의 동작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데 쓰는 종결 어미.
‘-ㄴ다/’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4) 『표준모형』은 한국어 교육 기관 및 교육과정 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개발한 자료이다. 『표준모형』의 신뢰성 및 효용성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겠으나 특정 문법 항목에 관한 교육 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현행 한국어 교재의 교육 단계 현황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 및 학습 양상 등과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는다’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이며,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누구, 무엇, 언제, 어디’ 따위의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 쓴다.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이며,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	---

다음은 국립국어원(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다’, ‘-나다/-는다’에 관한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어미 ‘-다’의 의미와 기능(『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구어	문어
의미 기능	① 형용사, ‘이다’, ‘아니다’나 ‘-았-’, ‘-겠-’에 붙어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서 아랫사람에게나 친한 사이에서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과거의 행위나 상태, 예정된 일이나 의지, 추측을 나타낸다. ② 주로 ‘-았-’에 붙어 이미 알거나 들은 사실을 확인 차 다시 묻거나 빈정거릴 때, 혹은 혼잣말을 하며 생각하듯이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① 형용사, ‘이다’, ‘아니다’나 ‘-았-’, ‘-겠-’에 붙어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서 신문이나 일기 같은 글에서 현재의 상태나 사실, 과거의 행위나 상태, 예정된 일이나 의지 추측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구어에서와 달리 높임과 안 높임의 구분이 없다. ② 동사에 붙어 신문 기사의 제목, 광고 등의 글에서 현재나 과거의 사실, 또는 미래의 상황 등을 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간략하게 진술할 때 쓴다. 예) “한국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쓰다”

[표 3] 어미 ‘-나다/-는다’의 의미와 기능(『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구어	문어
의미 기능	① 동사에 붙어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서 아랫사람이나 친한 사이에서 현재의 행동이나 사실, 습관, 이미 확정된 계획이나 의지, 확실한 미래 등을 나타낸다. ② 이미 알거나 들은 사실을 확인차 다시 묻거나 빈정거릴 때, 혹은 혼잣말을 하며 생각하듯이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① 동사에 붙어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서 신문이나 일기 같은 글에서 현재의 행동이나 사실,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구어에서와 달리 높임과 안 높임의 구분이 없어진다.

[표1]~[표3]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와

『표준국어대사전』 모두 ‘-다’가 구어에서 형용사나 동사,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쓰여 ‘-다’. ‘-(으)시다’, ‘-있/었다’, ‘-겠다’ 등의 형태로 서술형 종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이에 덧붙여 특히, ‘-다’가 구어에서 주로 ‘-있/었다’의 형태로 혼잣말이나 빈정거림을 나타내고, 문어에서는 동사에 붙어 ‘-다’의 형태로 신문 기사의 제목, 광고 등에서 간략한 진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 특성 및 기능에 관해 형태 정보를 덧붙여 좀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ㄴ다/-는다’에 관해서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구어에서의 ‘해라’체 종결 기능 및 혼잣말의 기능에 덧붙여 빈정거림의 의미 특성에 관해 추가로 기술하고 있으며, 문어의 경우 주로 쓰이는 글의 종류에 관한 정보 등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2.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

전통적으로 ‘-다’, ‘-ㄴ다/는다’는 상대높임법과 문장종결법의 체계 안에서 해라체 평서형 종결어미로 기술되어 왔으며 주로 설명이나 서술의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어미로 다루어져 왔다(남기심·고영근, 1985; 서정수, 1996; 윤석민, 2000; 이종희, 2006 등)⁵⁾. 윤석민(2000: 105~106)에서는 ‘-다’가 설명법에 가장 합당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설명법 문장종결형의 대표적인 형태이면서 감탄, 약속, 경계, 명령 등의 문장 종결법을

5) 종결어미의 기능 및 의미의 정의와 범주 설정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능 문법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문장 종결을 담당하는 통사적 기능, ‘서술’이나 ‘설명’ 등의 기능, 발화 상황과 관계가 있는 상대높임법의 기능, 구어와 문어적 특성에 따른 기능 등을 모두 ‘기능’으로, 이에 비해 ‘알림’, ‘감탄’ 등 담화 맥락에 따른 의미적 특성과 관계있는 것들은 ‘의미 기능’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종결어미의 기능 및 의미 체계에 관해서는 윤석민(2000), 이종희(2006) 등을 참조할 것.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종희(2006: 109)에서는 ‘-다, -는다’가 글말의 전형적인 어미로서, 글말에서 불특정의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 기능을 하는 어미로서는 ‘-다, -는다’가 유일하고 입말에서는 ‘알림’이나 ‘의문, 의심’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과 사용 양상에 관한 관심이 커져 왔는데 특히 ‘해체’ 종결 어미인 ‘-아/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구어에서의 교육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나리(2004: 98~103)에서는 구어에서 ‘다’와 ‘-어’가 사태를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기술할 때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는 어투가 자연스럽고 비격식적이며 부드러운데 반해, ‘-다’는 자연스러움이 덜하고 딱딱하며 격식적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발화 상황의 ‘반사성’과 ‘즉각성’에 따라 상호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의미 차를 가지고 변별적인 쓰임새를 보인다고도 하였다. 안주호(2016)에서는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한 말뭉치를 통해 구어에서 ‘-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주로 남성 화자나 교사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구어에서 ‘해요’체 및 ‘해’체와 넘나드는 경우가 많고, 감탄, 경고, 명령, 의지, 인용, 질문 등의 특별한 의미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다’, ‘-ㄴ다/는다’는 문어에서는 서술이나 설명의 기능을 하는 반면, 구어에서는 담화 맥락에 따라 알림, 경고, 의심, 감탄, 명령, 의지, 빈정거림 등 특별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어미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안주호(2004), 박재남(2013) 등이 있다. 안주호(2004)에서는 한국어 어미 사용 빈도 맥락에서 ‘-다/ㄴ다/는다’의 사용 양상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ㄴ다/는다’를 구어체 격식체 종결어미 ‘-ㅂ니다/습니다’ 및 ‘-아요/어요’와 더불어 초급에서

교수·학습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⁶⁾. 박재남(2013)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을 분석, 제시하고 초급 단계에서는 쓰기 교육에서의 학습과 더불어 ‘감탄하거나 혼잣말하기’, ‘비꼬거나 빈정대며 말하기’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능은 중·고급 단계에서 제시할 것, ‘-다’의 사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라체를 사용할 수 있는 화자와 청자 간 관계나 상황을 교수할 것, 억양에 따른 ‘-다’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억양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안주호(2004)와 박재남(2013)의 연구는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기능 교육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기능의 교육에 관해서는 ‘-다’, ‘-ㄴ다/는다’의 문어적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을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한국어 교재들의 경우 ‘-다’, ‘-ㄴ다/는다’의 문어적 기능과 구어적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문법 교육 내용으로 다루기도 하고 아예 다루지 않기도 하며 교육 단계 역시 교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표준모형』의 문법 표현 등급 목록과 기능 및 과제 유형을 살펴 보고 한국어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다’, ‘-ㄴ다/는다’의 적절한 교육 단계 설정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6) 안주호(2004: 286)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문어 자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종결어미의 순서를 이형태를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ㄴ다/는다(98,851)>니다/습니다(9,524)>라(8,233)>아/어/야(6,557)>어요/야요(4,519)’등의 순서이고, 구어 자료에서는 ‘어/아/ㄱ/ㄴ/ㅏ(35.38%)’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다’, ‘-ㄴ다/는다’의 교육 단계 설정

먼저 『표준모형』의 문법 항목 등급 분류를 살펴보겠다. 먼저 2011년의 2단계 보고서에서는 ‘-다’, ‘-ㄴ다/는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동사, 형용사, ‘이다’의 활용형 중 기본형을 나타내는 ‘-다’ : 초급(1, 2급)
- (2)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서 ‘-다’, ‘-ㄴ다/는다’ : 중급(3, 4급)
- (3) 동사에 붙어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행위를 간략히 진술함을 나타내는 어미 ‘-다’ : 중급(3, 4급)

2017년의 4단계 보고서 문법 등급 목록에서는 이 중 (1)의 ‘-다’를 빼고 (2)와 (3)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2) ‘-다’, ‘-ㄴ다/는다’ : 3급
- (3) ‘-다’ : 5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의 ‘-다’, ‘-ㄴ다/는다’는 구어에서는 ‘해라’체 낮춤말의 기능을, 문어에서는 높임과 안 높임의 구별 없이 서술이나 진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어에서는 다양한 의미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문어적 기능에 관해서는 변별적으로 모두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양한 구어적 의미 특성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표준모형』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여 제시하거나 등급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법 교수요목의 개발에 『표준모형』의 등급별 문법 항목 목록을 활용한다면 ‘-

다²’, ‘-ㄴ다/는다’의 구어적, 문어적 기능을 각각 어느 등급에서 교육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표준모형』의 기능 목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와 기술을 위한 편의상 이하 내용에서는 ‘-다’, ‘-ㄴ다/는다’를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 ‘-다’, ‘-ㄴ다/는다’: 구어에서 해라체 평서형 종결어미
- ‘-다²’, ‘-ㄴ다/는다²’: 문어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 ‘-다³’: 문어에서 시간 표시 없는 간략한 서술

먼저 ‘-다²’, ‘-ㄴ다/는다²’의 교육 단계 설정을 위해 관련 기능들의 중점 등급⁷⁾이 『표준모형』(2011, 2017)⁸⁾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 서술 기능의 중점 등급>

- 3~4등급 : 감상하기, 논증하기, 묘사하기, 반박하기, 발표하기, 서술하기, 설명하기, 요약하기, 재구성하기, 전달하기, 정보구하기, 전망하기, 주장하기, 찬성·반대하기, 추론하기, 정보구하기, 정의하기, 추론하기 등
- 5~6등급 : *기술하기, 논평하기, 반박하기, 보고하기, 전망하기, 정의하

7)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은 『표준모형』의 중점 등급이므로 교육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등급은 이보다 폭넓다고 하겠다.

8) 2011년의 『표준모형』 2단계 보고서에서 109개로 선정 제시했던 기능 범주를 2017년의 4단계 보고서에서는 다수 통합하여 52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²’, ‘-ㄴ다/는다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명, 서술 기능도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기능의 하위 범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2단계 목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3단계와 4단계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등급 분류가 바뀐 기능 항목의 경우에는 2017년의 4단계 보고서의 등급 분류를 따르고 ‘*기술하기’와 같이 *를 붙여 표시하였다.

기, *진술하기, 문제 제기하기 등

위에서 ‘-다’⁹⁾, ‘-ㄴ다/는다’²⁾와 관계가 있는 의사소통 기능들의 중점 등급은 주로 3~4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의사소통 과제의 수행에는 단순히 문어의 수용이나 산출이 아니라 문어·구어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⁹⁾.

다음은, 『표준모형』에서 설명 및 서술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습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표 5]는 해당 과제들 중에서 특히, 문어 산출 또는 수용과 관련 있는 것들을 뽑아 문어 능력, 구어 능력, 문어·구어 상호능력과의 관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¹⁰⁾.

먼저 읽기 및 쓰기 영역에 국한되어 단순히 문어 수용이나 산출 능력만이 요구되는 기능 및 과제유형에는 [표 4]와 같은 것들이 있다.

9) 예를 들어 ‘발표하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어 자료를 이해하고 발표문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다시 답화 맥락에 알맞은 구어 형식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보고서나 요약문을 격식체 구어체로 작성한다든가 문어체로 작성한 보고서나 발표문을 발표할 때 문어체로 읽는 등의 학습자 오류를 흔히 접할 수 있다.

10) 여기서 『표준모형』의 기능 또는 과제와 문어 산출과 수용 행위 간의 관련성은 문어체와 구어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거절하기’ 기능과 관련하여 이메일로 거절하는 답장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글말로 작성되나 구어체로 문장을 생성하므로 문어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메모하기’처럼 쓰기 영역의 전형적인 기능이라도 역시 ‘-다’, ‘-ㄴ다/는다’보다는 ‘-(으)ㄴ’이나 ‘-기’와 같은 다른 문법 항목의 활용 능력이 주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표 4〕 문어수용, 문어산출만을 요구하는 기능 및 과제 유형의 예

중점 등급	기능	과제 유형의 예
3급	감정표현하기	기분과 감정에 대한 글 읽기, 쓰기
	정보구하기	제품사용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읽기
4급	논증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논문 쓰기
	*묘사하기	외모, 가족, 사물 등에 대해 묘사하는 글 읽기, 쓰기
	설명하기	교통수단, 장·단점 등에 관해 설명하는 글 읽기, 쓰기
	주장하기	주장하는 글 읽기, 쓰기
	추론하기	추론하는 글 읽기, 쓰기
5급	정의하기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의 글 읽기, 쓰기
6급	전망하기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글쓰기

이에 비해, [표 5]는 설명이나 서술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말하기
과제로 수행하거나 구어 정보를 듣고 이를 서술하는 글을 쓰는 등 문어·
구어 상호작용이 필요한 기능 및 과제의 유형을 중점 등급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5〕 문어·구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기능 및 해당 과제의 예

중 점 등 급	기능	과제		
		문어 이해, 문어 산출	문어·구어 상호작용	
			구어 이해 기반 문어 산출	문어 산출 기반 구어 산출
3급	계획 하기	희망, 계획 관련 글쓰기	-	계획 세우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기술 하기	다양한 주제 관련 기술하기, 책 읽고 내용 기술하기	연설, 강의 듣고 내용 기술하기	-
	서술 하기	자기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에 대해 조사 서술하는 글쓰기	드라마를 보거나, 강의를 듣고 내용 서술하는 글쓰기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4급	반박 하기	평론 읽고 반박 글쓰기	-	-
	발표 하기	-	-	환경보호 사례 조사 발표하기
	감상 하기	소설 감상하고 감상문 쓰기	영화감상하고 감상문 쓰기	감상문 발표하기
	요약 하기	신문기사 읽고 요약하기	듣은 내용 요약해서 쓰기	요약해서 발표하기

	전달하기	-	-	뉴스, 신문기사 등 내용 등 전달하기
5급	논평하기	논리적인 글을 읽고 평가하거나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쓰기	-	-
	보고하기	회의록, 보고서 쓰기	-	조사 결과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기

종합해 볼 때 ‘-다²’, ‘-ㄴ다/는다²’의 활용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 및 과제들은 주로 3, 4급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준모형』의 기능 및 과제 등급을 바탕으로 한다면 ‘-다²’, ‘-ㄴ다/는다²’는 이들 기능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3급 초반에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재에서 학습자들이 1, 2급의 오랜 교육 기간 동안 ‘합쇼’체와 ‘해요’체 구어체만을 활용한 읽기 텍스트에 노출됨으로써 문어체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담화 맥락에 따라 사용하는 데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2급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관련 기능 및 과제 중 다수가 문어·구어 상호능력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관련 문법 표현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관련 문법 표현으로는 ‘인용, 가정, 추측’ 등의 문법 또는 어휘 표현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다’, ‘-ㄴ다/는다¹’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어에서 해라체 낮춤말의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혼잣말, 빈정거림, 알림, 감탄, 경고, 명령, 의지, 자랑 등 다양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²’, ‘-ㄴ다/는다²’보다 좀 더 복잡하다. 이와 관련한 기능들이 『표준모형』에서 각각 어느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ㄴ다/는다’ 관련 기능의 등급 >

- 감정표현하기(3), 걱정하기(3), 경고하기(4), 금지하기(2), 명령하기(1), *불만 표현하기(4), 자랑하기(3)

이들 기능의 의미 특성이 각각 독립적인 기능에 속하므로 이들 기능들을 활용한 ‘-다’, ‘-ㄴ다/는다’은 ‘반말’의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해당 기능의 교육 단계에서 기능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준모형』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각 교재에서도 해당 단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령하기’와 ‘금지하기’의 경우 1, 2급에서는 현재와 같이 ‘-(으)십시오’, ‘-(으)세요’ 및 ‘-(으)면 안 돼요/됩니다’ 또는 ‘-지 마세요/마십시오’의 문법 형태를 통해 교육하되, 3급 이후 ‘-다’, ‘-ㄴ다/는다’을 활용한 형태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의 경우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글이나 개인적인 내용의 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신문 기사의 제목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표준모형』(2017)의 읽기와 쓰기 영역 등급 목표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능력을 5급에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현행 한국어교재의 교육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V. 한국어 교재 분석

다음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다’, ‘-ㄴ다/는다’를 다루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교재와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제시 단계 및 단원, 과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분석 교재별 제시 항목과 단계 및 과제 유형

분석 대상 교재	제시 항목	단계 (단원)	과제
『서울대 한국어』	‘-다’ ² , ‘-ㄴ다/는다’ ²	2권(18과)	한국 생활에 관한 일기문, 수필문 쓰기
『경희 한국어』	‘-다’ ¹ , ‘-ㄴ다/는다’ ¹ ‘-다’ ² , ‘-ㄴ다/는다’ ²	2권(12과) 3권(2과)	수필문, 시험답안지 쓰기 친구와 반말로 대화하기
『연세 한국어』	‘-다’ ¹ , ‘-ㄴ다/는다’ ¹	2권(4과)	친구와 반말로 대화하기
『이화 한국어』	×	×	×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다’ ¹ , ‘-ㄴ다/는다’ ¹	2권(15과)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감탄 표현하기

1. 서울대학교 교재

먼저, 여러 교재 가운데 문어체 평서형 종결어미 기능으로서의 ‘-다’², ‘-ㄴ다/는다’²를 문법 교수·학습 내용으로 가장 상세히 다루고 있는 『서울대 한국어』(2013)의 경우를 살펴보자.

[표 7] 『서울대 한국어』(2권 18과) : ‘-다’², ‘-ㄴ다/는다’²의 제시 및 활동

제시 영역	교수·학습 활동	학습 목표
문법과 표현 2	▪ 형태, 의미, 기능 제시	▪ ‘-다’ ² , ‘-ㄴ다/는다’ ² 의 형태와 의미, 기능 이해
말하기 2	▪ 한국의 계절에 대한 일기 형식의 문어 텍스트를 읽고 품사에 따른 이형태 학습하기 ▪ 한국 생활에 대해 친구와 나누는 구어 담화를 완성하고 대화 내용을 일기문으로 변환하여 쓰기	▪ ‘-다’ ² , ‘-ㄴ다/는다’ ² 의 이형태 학습 ▪ 구어 수용, 문어 산출
듣기	▪ 듣고 내용 파악하기와 관련하여 문어체로 문장 완성하기	▪ 문어 수용
읽고 쓰기	▪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사람에 대한 수필문 예시글을 읽고 같은 주제와 형식의 글쓰기	▪ 문어 산출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2권의 마지막 단원(18과)에서 ‘-다²’, ‘-ㄴ다/는다²’를 다루고 있다. 『표준모형』에서는 이를 3급의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나 [표4]~[표5], 『표준모형』의 관련 기능에 관한 검토 부분의 말미에서 기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2급의 마지막 단원에서 미리 그 의미 기능과 형태에 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해당 단원에서는 ‘문법과 표현’에서 ‘-다²’, ‘-ㄴ다/는다²’의 품사 결합 정보와 의미 기능 정보를 제시하고 문법 연습 과제를 통해 이를 익히도록 한 후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각각 ‘-다²’, ‘-ㄴ다/는다²’를 활용하여 일기 문과 수필문을 쓰는 과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말하기’ 영역에서는 구어 담화 구성 과제를 수행하고 이 내용을 일기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어 수용과 문어 산출 기능을 연계하여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읽고 쓰기’ 영역의 과제는 문어체로 쓰인 발표문을 읽고 ‘-다²’, ‘-ㄴ다/는다²’를 활용하여 같은 주제의 짧은 글을 쓰도록 하고 있다.

종합해서 볼 때 서울대 교재의 경우 ‘-다²’, ‘-ㄴ다/는다²’의 의미와 형태 학습을 위한 제시와 연습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구어 수용·문어 산출, 문어 수용·문어 산출 등 기능 영역의 과제도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동일한 담화 맥락 안에서 구어 수용과 문어 산출, 또는 문어 수용과 구어 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과제를 제시한다면 구어 문어 상호능력을 함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살펴볼 『경희대 한국어』의 대화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다.

한편, 『서울대 한국어』는 ‘-다¹’, ‘-ㄴ다/는다¹’을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문법 교수요목에서는 반말을 ‘-다²’, ‘-ㄴ다/는다²’에 앞서 2권 10과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해’체 종결어미인 ‘-아/어’에 국한하여 교수·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어’가 일상생활 구어에서 쓰이는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자 한 의도로 추측된다. 그러나 ‘감탄’, ‘알림’, ‘혼잣말’ 등 ‘-다¹’, ‘-ㄴ다/는다¹’의 다양한 구어적 기능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로 교재 내에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한국어』는 ‘-다³’ 역시 문법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대 교재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준모형』에서는 ‘-다³’을 5급의 문법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신문 기사나 사설 등 사회적 주제에 관한 고급 담화의 정확한 이해 능력 함양을 위해 또,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이 주로 4권 이상의 단계에서 신문 기사를 읽기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교재의 문법 교수요목 및 구성에 맞추어 ‘-다³’을 4급이나 5급의 문법 교수요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경희대학교 교재

『경희대 한국어』(2017)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교재로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문법 및 표현, 언어 기능의 통합 교재임을 밝히고 있다. 2권의 경우 문법 표현을 학습하기 전에 제시된 대화문을 활용하여 단원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문법 표현의 의미, 형태 학습 과제와 언어 기능 과제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점이 다른 교재들과는 다르다. 이는 통합 교재로서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표 8) 『경희대 한국어 2』, (12과) : ‘-다²’, ‘-ㄴ다/는다²’의 제시 및 활동

제시영역	교수·학습 활동	학습 목표
대화문	구어 담화문 맥락 안에서 제품 설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대화문을 통해 의미와 기능 제시	‘-다²’, ‘-ㄴ다/는다²’의 의미와 기능 유추하여 이해하기

문법	▪ 예문 제시 ▪ 동사, 형용사 대체 연습 ▪ ‘해요’체 구어 문장 제시, 목표 문법을 활용한 문장 변환 연습 ▪ 원고지에 쓰기 : 200자 이내의 짧은 ‘해요’체 글을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문어체로 원고지에 쓰기 ▪ 시험 답안지 쓰기 : 200자 이내의 짧은 ‘해요’체 글을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문어체로 시험 답안지에 쓰기	▪ ‘-다²’, ‘-ㄴ다/는다²’의 이형태 학습 ▪ 구어 수용, 문어 산출
----	--	--

이러한 구성에 따라 2권 12과의 대화문 안에 화자가 제품(보일러) 설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대화 상황을 통해 ‘-다²’, ‘-ㄴ다/는다²’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재와 비교할 때 이는 ‘-다²’, ‘-ㄴ다/는다²’의 쓰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문어 수용 구어 산출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을 학습자에게 좀 더 잘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9] 『경희대 한국어 2』, 12과의 대화문

<……> 제임스 :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한번 읽어 보세요. 서준 : 네, 여기 있어요. 음, ‘전원코드를 확인한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의 버튼을 누른다’. 제임스 :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해요. <……>

그러나 이에 비해 연습 과제로는 단순한 대체 연습과 변환 연습만이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자가 ‘-다²’, ‘-ㄴ다/는다²’의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 ‘언어 기능 통합 과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요’체 문장으로 쓰이기는 했으나 구어 담화의 맥락이 배제된 짧은 글을 제시하고 이를 ‘-다²’, ‘-ㄴ다/는다²’를 활용하여 문어체로 변환하도록 하고 있어 기능 영역의 통합 과제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표 10] 『경희대 한국어 2』, 12과의 기능 통합 과제

3. 보기와 같이 다음 글을 ‘-ㄴ다, -는다, -다’로 바꿔 보세요.
 (1) 저는 지난 방학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 일은 저에게 아주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경희대 한국어』의 경우에는 『서울대 한국어』와 반대로 ‘-다²⁾’, ‘-ㄴ다/는다²⁾’의 교수·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3권 2과 ‘기분과 감정’에서 ‘반말’을 배우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반말 I’에서 ‘-아/어/해’를 먼저 제시하고, <표 11>에서와 같이 ‘반말II’에서 ‘-ㄴ/는다, -니?, -자, -아/어/해라, -는구나’의 ‘해라’체 어미들을 함께 모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경희대 한국어 3』, 2과의 문법 제시와 연습 1

반말 II(-ㄴ/는다, -니?, 자, -아/어 해라, -는구나)

라이언 우리 주말에 같이 명동에 가자.
 유니아, 다음 주 발표 준비는 다 끝났니?

1.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보기 로안, 꽃 준비했어? 저기 언니가 온다.(오다)

- (1) 로안, 왜 그래? 어디 _____?
 (2) 와, 주말에는 명동에 사람이 이렇게 _____.(많다)
 (3) 베카타,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먼저 _____.(먹다)

[표 12] 『경희대 한국어 3』, 2과의 문법 제시와 연습 2

2.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보기 : 가: 이것 좀 먹어 봐. 내가 직접 만든 요리야.
 나: 우와,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을게.

- (1) 가 : 로안, 내일은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절대 _____.
 나 : 네, 선생님. 내일 일찍 오겠습니다.
 (2) 가 : 영화는 1시간 후에 시작인데 그때까지 뭐 하지?

- 나 : 영화관 앞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_____.
- (3) 가 : 지영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왜 학교에 _____.
- 나 : 아, 어제 배탈이 마서 병원에 가느라고 못 왔어.

[표 11], 연습 1의 (3)번 문제는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 가운데 ‘알림’의 의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이를 문장의 종류에 따른 여러 ‘해라’체 종결 어미들과 함께 제시하여 ‘반말’의 범주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알림’의 의미 기능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품사에 따른 이형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ㄴ/는다’, ‘-는구나’의 형태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2)번 문항에서는 학습자가 형태 정보를 유추하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연습 2’의 경우에는 <보기>에 전형적인 감탄의 ‘-다’가 대화문의 맥락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작 연습 활동 과제에는 이와 관련한 과제가 없다.

이상, 『경희대 한국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 ‘-ㄴ다/는다’를 ‘해라’체 어미의 하나로 도입하는 경우 그 구어적 의미 특성에 관한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다’, ‘-ㄴ다/는다’를 ‘반말’ 또는 ‘낮춤말’의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각각의 구어적 의미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단원의 주제나 기능과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연습 과제의 경우 ‘감탄’의 의미 기능에 관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면 학습자가 ‘감탄’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표 13] ‘-다’, ‘-ㄴ다/는다’의 감탄 기능에 관한 과제 구성의 예

- ‘A-다, V-ㄴ다/는다’
- 가: 와! 명동에 사람이 정말 많다!
- 나: 그래. 평일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휴일에는 정말 붐빈다!

- (1) 가: 내가 만든 케이크야. 맛이 어때?
 나: 와! 정말 맛있다 !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드는구나.(맛있다)
- (2) 가: 이 옷 어때? 이번 생일에 선물로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
 나: 와우! 색깔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3. 연세대학교 교재

『연세 한국어』(2007)는 ‘-다’²⁾, ‘-ㄴ다/는다’를 다루지 않고 ‘-다’, ‘-ㄴ다/는다’만을 2권 4과 ‘반말’에서 다루고 있다. 2권의 4과에서는 소단원 1~4 전체에 걸쳐 ‘-어’, ‘-지 마’, ‘-는다’, ‘-니?’, ‘-어라’, ‘-자’ 등 ‘해라’체와 ‘해’체 종결어미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 ‘-ㄴ다/는다’은 세 번째 소단원에서 다른 ‘해라’체 종결 어미들과 함께 제시하고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합쇼체 종결어미 문장을 ‘-다’, ‘-ㄴ다/는다’을 활용하여 변환하는 기계적인 연습만 간단히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 교수·학습하는 ‘-아/어’와 사용 맥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습자가 알기 어렵고, 담화 맥락에 맞는 반말의 구사능력을 신장하기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말하기 과제에서는 반말을 사용하여 친구의 생일 초대를 거절하는 대화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이와 같이 ‘반말’ 범주에 ‘-다’, ‘-ㄴ다/는다’을 도입하고 특정한 주제에 관해 대화를 구성하는 유형의 말하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 ‘-ㄴ다/는다’의 경우 그 구어적 의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제 중심의 담화를 구성하도록 할 때는 ‘-아/어’와는 달리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담화를 구성할 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 ‘-ㄴ다/는다’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말’의 문법 항목 중 하나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등급에 별도의 문법 표현으로 도입하고, 단원의 주제와

연계하여 담화 맥락 안에서 제시하거나 또는 [표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구어적 의미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이화 한국어』(2010)에서는 ‘-다’, ‘-ㄴ다/는다’와 관련해서 세 가지 모두 명시적인 문법 항목으로는 다루지 않고 있다. 2권의 마지막 단원(제15과 ‘안부와 소식’)에서 ‘반말’과 ‘낮춤말’을 별도로 구성해 ‘해’체와 ‘해라’체 종결 어미를 따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라’체 어미의 제시에 있어 평서형만은 -다¹, ‘-ㄴ다/는다’ 대신에 ‘-아/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마 서울대 교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어’가 일상생활 구어에서 쓰이는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화 한국어』의 기능 영역 과제 구성을 살펴보면 3권 3과까지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모두 편지글이나 신청서, 인터뷰 내용 등 문어체 사용이 필요 없는 담화만을 제시하거나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권의 첫 단원부터 듣기, 읽기 영역 내용 파악 과제의 보기 지문들을 문어체로 제시하고 있으며, workbook 2권 11과의 어휘학습 과제 활동에서는 용언의 기본형으로 제시된 어휘 표현들을 문어체에 알맞은 형태로 활용하여 일기문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²’, ‘-ㄴ다/는다²’의 기능 및 형태에 관한 교수·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어체 문장을 이해하고 문어나 구어 산출 형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거나 기본형으로 제시된 표현들을 ‘-다²’, ‘-ㄴ다/는다²’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변환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재에서 문어체 텍스트가 처음 제시되는 단원은 3권 4과, ‘건강과 생활’이다. 그런데 이 단원에서도 설명문 쓰기를 위한 단락 구성 연습만을 과제 활동으

로 부여하고 문어체 종결표현의 학습을 위한 연습이나 과제는 따로 구성하지 않아서 아쉽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화 한국어』의 경우 3권 4과의 설명문 읽기, 쓰기 과제 이전에 ‘-다’²⁾, ‘-ㄴ다/는다’를 문법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2권의 기능영역에서 문어체로 제시되는 지문들은 ‘-아/어요’나 ‘-습니다/습니다’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마지막으로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에 관한 사례로서 국립국어원(2009)의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를 살펴보겠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교재들과는 달리 2권 15과에 ‘-다’, ‘-ㄴ다/는다’를 문법 교육 항목으로 제시하고, 설명이나 평서형 종결의 기능에 관해서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 기능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표 14]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문법	교재 등급	단원(명)	목표 기능
• ‘-다’, ‘-ㄴ다/는다’ (감탄)	2급 (2권)	15과 (‘파란색 원피스가 정말 예쁘다!’)	가까운 사람에게 감탄 표현하기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단원의 대화문은 ‘해요’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인사말과 감탄의 표현만 ‘해’체의 ‘-아’와 감탄을 나타내는 ‘-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재의 학습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인 점을 고려하여 가까운 사이에 비격식체 두루높임의 ‘해요’체와 낮춤말이 자주 섞여 사용

되는 일상의 구어 담화 맥락 안에서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 가운데 하나인 ‘감탄’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림 1]의 문법 제시와 연습을 위한 문장들도 모두 ‘감탄’의 의미 기능에 한정되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다’, ‘-ㄴ다/는다’은 반말의 교육이 아니라 ‘감탄’의 의미 기능을 교육하기 위한 문법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 15]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15과)의 대화문

15과 파란색 원피스가 정말 예쁘다	
수잔 : 호영 어디가?	
호영 : 남편과 저녁 약속이 있어요.	
수잔 : 파란색 원피스가 정말 예쁘다!	
호영 :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 왔어요.	
<.....>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15과, 문법 제시와 연습

-다/는다/ㄴ다			
형용사 → -다		동사 → -는다/ㄴ다	
맵다	맵다	먹다	먹는다
예쁘다	예쁘다	자다	잔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잘하다	잘한다
• 매운탕이 너무 맵다! • 드라마가 참 재미있다! • 진수가 정말 밥을 잘 먹는다! • 그 가수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			

이와 같이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 중 하나를 독립적인 문법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다른 한국어교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에 관해 학습자의 성격이나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

능에 관해서만 적절한 단계에서 교재 또는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법의 사례로서 참고할 만하다.

V. 결론

한국어 문법 교육은 석주연(2007: 379), 최은규(2013: 275) 등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즉 한국어의 사용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모형』의 관련 내용과 현행 한국어 교재 5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문어적 기능과 용법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 ‘-ㄴ다/는다’의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고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들 중 경희대 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은 ‘-다’, ‘-ㄴ다/는다’의 문어적 기능과 구어적 기능 가운데 하나만을 명시적인 문법 교육 항목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 ‘-ㄴ다/는다’는 문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어미이다. 또, 구어에서도 ‘어> 야> 지> 잦아’ 다음으로 높은 사용빈도(4.69%)를 보이는 어미이다(안주호, 2004: 275). 따라서, ‘-다’, ‘-ㄴ다/는다’의 문어적, 구어적 기능에 관해 모두 교육해야 한다.

둘째, ‘-다’, ‘-ㄴ다/는다’는 문어에서는 높임과 안 높임의 구별이 없이 서술이나 진술의 기능을 하는 반면, 구어에서는 ‘해라’체 낮춤말 종결형으로 담화 맥락에 따라 혼잣말, 빈정거림, 알림, 경고, 의심, 감탄, 명령, 의지 등 다양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의 성격과 특성에 이와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어적 기능과 문어적 기능은 독립적인 문법 항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기능을 다루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은 이를 ‘반말’의 문법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다’, ‘-ㄴ다/는다’의 다양한 구어적 의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반말’ 또는 ‘낮춤말’의 문법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기보다는 각각의 의미 특성에 따라 단원의 주제 또는 기능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감탄’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넷째, 『표준모형』의 문법 항목 등급과 기능 등급에 관한 검토와 현행 교재의 읽기 텍스트 제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다’, ‘-ㄴ다/는다’의 문어적 기능에 관한 학습은 3급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 현행 문법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볼 때 ‘-다’, ‘-ㄴ다/는다’의 구어적 의미 특성에 관한 교육은 교재의 구성에 따라 ‘반말’의 학습이 이루어진 2급 후반이나 3급 초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섯째, 한국어 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육의 차원에서 ‘-다’, ‘-ㄴ다/는다’의 문어체 종결 기능에 관해서는 단순히 형태와 의미, 기능에 관한 이해와 활용 차원을 넘어 구어·문어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모형』의 기능 및 과제 유형에 대한 검토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는 ‘기술하기, 서술하기, 발표하기, 감상하기, 요약하기, 전달하기, 보고하기’ 등이 있었으며, 앞에서 『표준모형』에서 각각의 기능들에 관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제 유형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과 교재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온 ‘-다’, ‘-ㄴ다/는다’의 교육이 보다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원 구성이나 교수·학습 모형 등의 제시에는 이르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다. 한국어교육에서 ‘-다’, ‘-ㄴ다/는다’의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에 의의를 두고 이에 관해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 국립국어원, 2005.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국립국어원, 2010.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2011.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2016.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 류선숙, 「다문화 아동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문어 교육 내용 분석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pp.55-97.
- 박나리, 「국어 평서문 종결어미의 서법적미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vol.18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0, pp.321-346.
- 박재남, 「구어에서 해라체 서술형 종결어미 ‘-다’의 의미적 특성」, 한국어와 문화 제 13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3, pp.171-200.
- 석주연,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문법 제시 방안 연구 - 두 모델 적용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45호, 국어국문학회, 2007, pp.379-409.
- 안주호, 「한국어교육에서의 어미 제시순서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34집, 배달말학회, 2004, pp.271-296.
- 안주호, 「한국어 해라체 종결어미 ‘-다, ㄴ다’의 구어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96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pp.8-31.
-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 종결법 연구』, 집문당, 2000.
- 최은규,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교수요목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3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pp.273-311.
- 이종희,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6.
- 장경현, 「문어/문어체·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2003, pp.143-165.
- 장소원, 「文法硏究와 文語體」, 한국학보 12권 2호, 일지사, 1986, pp.191-212.
- 최정순,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능력 배양을 위한 제언」, 한어문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제23집, 2010, pp.169-199.

2.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경희대 한국어 2, 3』, 형설출판사, 2017.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2, 3』, 문진미디어, 201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2, 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2, 3』,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국립국어원,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다’, ‘-ㄴ다/는다’ for the Improvement
of Mutual Abilities of Korea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 Focused on Setting up the Stages of Education and Categories
of Educational Contents -

Park, Hye-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wofold. The first purpose is to present how to set up the stages of education and determine the educational contents categories of ‘-다’, ‘-ㄴ다/는다’. The second purpose is to improve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f learners of Korean I. ‘-다’, ‘-ㄴ다/는다’ is the most representative Korean sentence final ending of literary style. To do this,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to investigate the literary closing function and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colloquial functions of ‘-다’, ‘-ㄴ다/는다’. After that, the relevant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el’ were reviewed and five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were analyzed.

Key Word : the mutual abilitie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e literary ending function and colloquial characteristics of ‘-다’, ‘-ㄴ다/는다’,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el, Korean language textbook Analysis

박혜숙

소속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강사

전자우편 : allete48@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